

자영업자 수 급감 · 대출잔액 사상 최대

전북 자영업 경기 ‘적신향’… 고령화 · 내수 부진 · 금융 부담 삼중고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이 장기 불황과 구조적 수요 위축, 금융 부담 가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폐업 증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북 자영업 생태계가 뿌듯한 침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023년 12월 27만3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5년 10월에는 24만6천 명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4~11%의 감소폭을 보이며 감소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신규 창업자 수도 빠르게 줄어드는 등 폐업 증가와 창업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9조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대출(14조6천억 원)이 2019년 말 대비 2.1배 급증하며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저신용 · 저소득 차주가 1년 새 각각 18.0%, 15.6% 증가하면서 취약차주 규모도 확대됐다.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음에도 2.2%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소비 기반 축소가 전북 자영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단기적 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됐지만 지속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외부 소비자 유입을 통한 수요 확충도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전북의 역

내 소비 유입률은 지방 평균보다 낮고,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운영 여건도 녹록지 않다. 농수산물, 전력 · 가스 등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주요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상가 공실률은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 소상공인은 전체 영업비용 중 매출원가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원가 부담이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금 조달도 팍팍해졌다. 예금은행은 연체를 상응으로 대출 여력이 줄었고, 상호금융도 자산건전성 악화로 대출 확대에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운영비 절감과 금융지원의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협동조합 기반의 공동구매 · 공동서비스 체계를 활성화해 식자재 ·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차주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에는 상환조정을 권고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성과가 유지되는 업체에는 운전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을 적극 연계해 ‘선행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창업 단계부터 상권 분석, 자금조달 전략 등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수자에게 정책자금과 보증을 연계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온라인 채널 활용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해 상품 정보 제공, 고객 응대, 리뷰 관리 등 온라인 경영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 교육과 데이터 기반 판매 · 성과 분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전기안전공사, 중기부장관 표창

상생협력기금 확대 · 안전 컨설팅 강화… 중소기업 지원 전력 빛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진행됐으며, 공사는 이튿날 수상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전년보다 8% 이상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저조했던 동반성장발 구매 실적을 대폭 끌어올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히는 데 기여했고, 핵심 협력기업의 ‘상생누리’ 등록을 통해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화영 사장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이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며 “전기안전공사는 앞으로도 동반성장의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11월 안전의 날’ 맞아 건설현장 재난 대비 모의훈련

전북개발공사는 27일 오전 10시 순창점진강장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11월 안전의 날’을 맞아 재난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고, 전파, 응급조치, 이송, 보고 등 전 과정의 대응 체계를 실천처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난 · 안전 위기상황 행동조치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훈련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활용한 실시간 보고 체계도 점검했다.

훈련 준비 과정에서는 현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장비의 작동 상태와 패드 부착 여부를 확인했으며, 훈련 참여자와 관계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역할 숙지를 꼼꼼히 시행했다. 혼선 방지를 위해 안전구역 지정 및 통제를 강화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모의 훈련은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 지역 디자인 정책 ·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2025년도 제2차 디자인자문위원회’ 개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가 27일 전북디자인센터에서 ‘2025년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 지역 디자인 정책의 향후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다.

디자인자문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디자인 정책과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자를 비롯해 디자인 · 산업 분야 전문가, 센터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전북디자인센터 주요 사업 성과 △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신규사업 기획안 △도내 기업 현황 분석 내용을 공유받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추진된 분야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업 대상 교육사업 등이 보고되었으며, 디자인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방향과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도 함께 검토됐

다.

다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원들은 추진현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도(26년) 센터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 디자인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적 제안도 이어졌다.

유종길 전북디자인센터장은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샘골농협, 정읍 신창마을에 ‘희망 농촌’ 조성

농촌의 유향 공간을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농촌 정비 사업이 정읍 신창마을에서 본격 추진됐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지난 26일 샘골농협과 함께 신창마을회 소유의 유향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는 ‘희망 농촌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희망 농촌 정비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농촌을 떠나가는 곳에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전북에서는 신창마을이 유일하



계 선정됐으며, 사업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대상 공간은 과거 어린이집과 예식장으로 쓰였으나 오랜 기간 방치되며 사실상 폐건물로 남아 있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특산품인 정읍산 밀과 한우를 활용한 청년 창업형 서양식 음식점으로 재탄생했고, 주변 경관 또한 정비돼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났다.

전북본부는 이곳이 샘골농협이 유향양곡창고를 카페로 재생시켜 성공 사례를 만든 것과 유사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유향 공간을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기관 협력 강화의 장 열려

제4회 전북 바이오포럼 성료… 실질 협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요 바이오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4회 전북 바이오포럼’이 11월 2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 컨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 내 바이오기관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출수 달 순환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열렸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을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등 도내 주요 바이오 관련 기관장과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식품진흥원의 기관 소개를 시작으로 기관별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자유토론, 기업지원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식품제조센터 등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며 식품 · 바이오 산업 간 융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의 중복과 분산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연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25-2184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용도별 구역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단지 개요
 - 명칭 :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용암리 일원
 - 지정면적 : 2,110,543.2㎡
 - 산업시설지구 : 1,715,724.1㎡
 - 지원시설지구(미나복합타운) : 394,819.1㎡
 - 사업시행자 :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 12월 31일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역(변경)

(단위 : ㎡)		
구분	기정	변경
관리대상면적(계)	1,895,396.5	1,895,326.9
산업시설구역	1,190,443.2	1,190,443.2
지원시설구역	60,750.0	72,967.7
공공시설구역	396,566.0	366,245.4
녹지구역	245,605.3	245,650.6
비고	○ 산업단지 전체면적 : 2,110,582.8㎡ ○ 관리대상 면적 : 1,895,396.5㎡ ○ 제외지 면적 : 215,216.3㎡	○ 산업단지 전체면적 : 2,110,543.2㎡ ○ 관리대상 면적 : 1,895,326.9㎡ ○ 제외지 면적 : 215,216.3㎡

-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11. 28. ~ 2025. 12. 12(14일간)
 - 장 소 : 완주군청 수소산업담당관
- 기타 관련서류는 완주군청 수소산업담당관(063-290-243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2025년 11월 28일 완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